

곽장근 교수의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 전북』을 읽고서

송화섭*

목 차

- | | |
|-------------------------|-------------------------------------|
| 1. 해륙사관으로 동철서염론을 주장하다 | 4. 전북가야의 반과국과 기문국을 찾아내다 |
| 2. 패총문화권과 세형동검문화권을 설정하다 | 5. 전라북도는 철기문화 기반의 마한·가야·백제 중심권 |
| 3. 전횡과 준왕이 전라북도에 들어오다 | 6. 5~6세기 철기문화가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을 꽃피웠다 |

이 책은 모두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전북 내륙문화와 해양문화의 융성, 제2장은 새만금, 동북아 해양문물 교류 허브, 제3장은 봉수왕국 전북가야 다양성과 국제성, 제4장은 고고학으로 밝혀낸 후백제의 역동성, 제5장은 전북 고대문화 복원과 미래전략으로 짜여 있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대륙의 귀퉁이에 위치하고 있기에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라는 주제는 잘 선정했지만,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했고 배짱이 두둑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배짱은 내공이다. 내공은 하루 아침에 생겨나는게 아니다. 곽장근 교수의 내공은 수십년간 역사유적을 찾아 산과 계곡을 누비며 단련되어 왔음이 이 책의 행간마다 깊게 스며있다. 이러한 주제는 역사고고학자라고 모두 쓸수 있는게 아니다. 그런데 곽장근 교수는 역사 유적과 유물의 부름을 받고 과감하게 정리해놓고 있다.

* 후백제학회 회장, 전 중앙대 교수, E-mail: histo55@hanmail.net

1. 해륙사관으로 동철서염론을 주창하다

이 책을 이해하려면 곽장근 교수의 역사관을 먼저 살펴야 한다. 숲과 나무의 관계다. 숲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볼 것이냐, 나무를 먼저 바라보고 나서 숲을 바라볼 것이냐는 차이다. 곽장근 교수는 일반적으로 고고학적 연구방법론인 유물의 형태, 유적의 형식 분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문화가 태동하게 된 자연지리적 환경을 바라보고, 그 문화환경에서 역사의 동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곽장근 교수는 유물, 유적 중심이 아닌 문화, 경관 중심으로 역사읽기를 하고, 역사를 생물체처럼 유물 유적에 문화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꿈틀거리게 하고 있다. 역사고고학자이지만 유물 유적에서 사람냄새가 진하게 나는 인문학자로서 고고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전라북도의 역사문화를 내륙수로와 해상교통을 연계시켜 역동성 있는 문화로 읽어내고 있다. 동북아 문물교류를 전라북도에서 찾아보겠다는 야심찬 의지를 읽어볼 수 있다. 한반도는 바다가 삼면이기에 동북아 문물교류는 해상교역과 해상교통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먼저 한반도의 문화지리적 자연환경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중해(東亞地中海)라는 시각과 관점이 있다. 반도는 대륙이 바다에 길게 뻗어있는 지형을 말한다. 유럽의 지중해는 이탈리아가 지중해에 뻗어 있다면,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가 지중해에 뻗어 있다는 뜻이다. 한반도는 남동해안 방향으로 일본이 둘러 싸여있고, 서해안 방향으로 중국 대륙이 둘러싸고 있다. 남쪽으로는 태평양의 바닷길이 열려있다. 한반도는 북쪽이 대륙과 연결되어 있을 뿐, 동쪽, 남쪽, 서쪽 삼면이 바다로 둘러 있다. 대륙이건 바다가건 길이 열려있고, 길로 사람들이 문화와 문물을 실어 날랐다.

동북아시아에서 고대사회부터 초원길, 사막길, 바닷길을 통해서 문물교류가 이뤄졌으며,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전라북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해륙사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한반도의 서남해안에 위치한다. 그리하여 대륙 계통 문화보다 해양 계통 문화의 교류와 교섭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반도 발해만에서 서해 연안항로를 따라, 황단항로를 따라 왕래하기도 쉽다. 고대사회에는 대륙교통보다는 해상교통이 훨씬 더 발달하였다. 전라북도는 해양환경과 해양지리적 위치 때문에 문물교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 중에 하나다. 북쪽에서는 연안항로와 황단항로를 통해서 대륙문화가 들어왔고, 남쪽에서도 연안항로와 황단항로, 사단항로를 따라서 서역계 문화와 남방계 문화

가 들어왔다. 우리나라에서 바닷길 문화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 전라북도이다. 이러한 혜택은 전라북도의 해양지리적 환경이 말해주는데, 위쪽부터 금강, 만경강, 동진강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고, 주진천이 줄포만과 연결되어 있다.

곽장근 교수는 해륙사관을 배경으로 동철서염(東鐵西鹽)의 화두를 꺼내었다. 중국 한나라 선제 때에 퍼낸 염철론을 차용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르다. 동철서염은 전라북도 동쪽에는 철기문화가 크게 융성하였고, 서쪽에는 소금생산유통이 산업으로 발달하였다는 논리다. 그 근거로 전북 동부산간지역의 제철유적을 들었고, 서부해안지역의 패총유적을 들었다. 이 구도는 명확하다. 금강, 만경강, 동진강, 주진천이 수로교통의 길을 열고 갯벌을 만들었다. 바닷길에서 수로 따라 신문화가 들어오고, 물길 따라 내려온 토사가 갯벌을 만들었다.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전북역사문화의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

2. 패총문화권과 세형동검문화권을 설정하다

동철서염의 관점에서 전라북도의 문화유산, 문화유적을 읽어보자. 제1장에서는 새만금권을 설정하고 있다. 새만금은 물막이 간척사업으로 생겨난 신조어이다. 새만금권에는 전라북도 해륙문화권인 만경강, 동진강이 들어있다. 해륙문화권에는 전라북도의 내륙수로인 만경강과 동진강이 바닷길과 연계되어 해상교역과 문물교류가 융성하였던 해양문화사가 깃들여 있다. 곽장근 교수는 새만금권의 전라북도 역사문화유산의 구도를 각 시대별, 주제별, 지역별 구도를 구분하여 정리해 놓았다. 전라북도 지역성을 역사고고학으로 차분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제일 먼저 군산도, 개화도, 옥구, 부안 등 해안도서지역의 신석기시대 패총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패총은 신석기시대부터 삼한시대까지 오랜 세월동안 해안도서지역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유적이다. 그러나 패총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쓰레기장 취급이다. 패총은 조개를 먹이로 활용할 수 있는 해안지대에 위치한다. 지금도 어촌의 갯벌에서 조개를 캔다. 패총이 조개더미다. 조개에 소금이 뿌려지면 젓갈이 된다. 지금도 전라북도 해안도서에는 젓갈산지가 조성되어 있다. 그 역사는 신석기시대까지 올라간다. 군산도, 옥구와 변산반도 해안지대는 신석기시대부터 삼한시대까지 패총이 밀집 분포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갯벌이 소금산지로서 최적이었기에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패총분포도를 살펴보면, 새만금권의 패총

유적은 가히 국내 최대 규모다.

이 새만금권의 신석기시대 패총문화 기반위에서 청동기시대 문화가 꽃을 핀다. 청동기시대 줄포만 주변에 고인돌문화권이 형성되고 있었지만, 군산도, 옥구 등 만경강 유역권에서는 청동기문화권이 형성되고 있었다.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적석목관묘에서 검파형동기, 세형동검, 동부, 동착 등 청동기와 흑색마연토기가 출토되었다. 검파형동기와 세형동검, 세문경은 청동기시대 상징적인 유물이다. 완주 갈동유적 널무덤에서는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화살촉, 청동창이 철도끼, 철낫,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군산 선제리유적과 완주 갈동유적과 만성동 일대에서는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에 걸친 초기철기시대 유물이 발굴되었다. 완주 신평유적에서는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인데, 간두령 한 쌍이 나왔다. 황방산 북서쪽 전북혁신도시 내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에서는 17점의 청동거울이 쏟아졌다. 우리나라에서 청동거울이 가장 많이 출토된 유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경강유역에서 조문경이 세문경으로 발전하고 전북혁신도시에서 만들어진 세문경이 전국적으로 널리 유통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새만금권 만경강 유역에서 초기철기시대 청동기와 철기유물이 집중 출토됨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세형동검문화권이 형성되었음을 알렸다. 이 새만금권 만경강 유역의 우수한 청동기문화는 전남 함평 초포리유적과 충남 전 덕산유적 세형동검문화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세형동검문화권으로 설정될 수 있다.

3. 전횡과 준왕이 전라북도에 들어오다

이처럼 초기철기시대 새만금-만경강유역의 청동기유물과 철기유물의 동반 출토 배경에는 대륙 계통의 우수한 청동기와 철기문화의 전래를 폄지 않을 수 없다. 신문화 전래의 주인공들이 전횡과 준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횡과 준왕은 서해의 바닷길과 만경강 내륙수로를 통해서 전북혁신도시와 익산 금마에 신문화를 유입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새만금-만경강유역의 철기문화는 경기도, 충청도의 철기문화보다도 시작이 앞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횡과 준왕은 바닷길을 통해서 내륙수로로 들어왔는데, 왜 최후 목적지가 만경강 유역이었을까가 수수께끼다.

준왕(準王) 세력은 기원전 194년경 발해만 요하유역에서 출발하여 바닷길을 따라 내려와 만경강을 통해 익산 금마로 들어왔고, 중국 제나라 전횡(田橫) 세

력은 기원전 202년경 바닷길을 따라 내려와 만경강을 통해 전주 혁신도시로 들어왔다. 이처럼 전횡과 준왕은 엇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다. 준왕의 발자취는 익산 미륵산의 기준성(箕準城)이 말해주고, 전횡의 발자취는 어청도, 외연도 치동묘(淄東廟)와 전북혁신도시에서 발굴된 중국식 동검(桃氏劍)이 말해준다. 중국식 동검과 중국제 유물이 완주 상림리에서도 출토되었다. 완주 상림리 중국식 동검 출토는 전북혁신도시에서 자리를 잡았던 철기문화가 전북 내륙 산간지역으로 중심이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횡 세력들은 제철의 광맥을 찾아서 완주를 거쳐서 진안고원으로 향하였다. 진안고원은 무주, 진안, 장수, 장계 일대를 가리킨다.

4. 전북가야의 반과국과 기문국을 찾아내다

진안고원으로 올라가보자. 진안고원은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사이를 가리킨다. 진안고원은 무주, 진안, 장수, 금산에 걸쳐있다. 금산은 현재 충남에 속해 있지만 1960년대까지는 전북의 행정구역이었다. 이 진안고원의 지역적 특성이 장수읍 노하리 가야무덤에서 마한계, 가야계, 백제계 토기로 확인되었다. 장수 삼고리 고분에서도 마한, 백제, 가야, 신라 토기가 동반 출토되었다. 진안고원에서도 금산, 진안, 무주에서는 마한의 분구묘와 가야 중대형 고총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야고총은 장수, 장계에서만 분포하여, 장수가야의 정치적 중심지가 장수 장계 지역임을 말해준다. 장수가야는 마한 분구묘의 문화적 기반위에 가야고총이 형성되었다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준다. 장수군의 점진강유역권인 산서면, 번암면에서는 가야고총이 발견되지 않아, 장수가야는 장수 삼봉리와 동촌리 중심으로 중대형 고총이 분포하는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다.

장수 삼봉리 유적에서는 꺾쇠, 등자, 재갈 등 마구류가 출토되었고, 장수 동촌리 유적에서는 말발굽과 말뼈가 출토되었다. 동촌리 말발굽은 가야고총 가운데 처음으로 발굴된 것으로, 장수가야 지배층들이 철기 주조 능력이 뛰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동촌리 28호분 발굴 결과, 대가야, 소가야 양식의 가야토기, 환두대도, 등자, 재갈, 화살통과 은귀걸이, 금귀걸이 등이 발굴되어 장수가야 지배층의 강력한 정치적 위상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장수가야의 지배층은 6세기 초까지도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장수가야는

240여기의 중대형 고총과 합미산성, 침령산성 등이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정치집단의 성장을 말해준다.

장수가야의 강력한 정치집단은 장계 중심의 봉화유적 분포가 말해준다. 봉화는 정치세력의 군사적인 신호 체계이다. 봉화의 역사성은 봉화로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하는 것인데, 금산, 무주, 완주, 진안, 임실, 순창, 운봉 동부 산간 지대에서 8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계분지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 봉화들은 발굴 결과 6세기 전후의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수가야가 없었다면 장수·장계 지역에 봉화가 조성될 필요도 없다. 광장근 교수는 이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는 진안고원의 장계분지이며, 봉화의 설치 주체는 반파국으로 비정하였다. 봉화에서 수습된 유물이 장수가야 수장층 분묘 유적의 출토품과 일치할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광장근 교수는 그동안 반파국으로 비정되었던 함양-운봉과 고령에서는 봉화가 한 개소도 발견되지 않은데 비하여 장계분지에 봉화가 집중하는 것은 반파국과 연결 짓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장근 교수는 기원전 3세기경 전북혁신도시로 들어온 철기문화가 기원전 84년 철산지를 찾아서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달궁계곡에서 마한왕이 70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철산개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운봉고원의 철산지는 니켈이 많이 함유된 철광석의 산지로 추정하고 있다. 남원 월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금은 상감 환두대도의 손잡이편은 운봉고원의 수장세력들이 6세기경 최고의 철기제작 기술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주인공들은 남원 청계리, 월산리, 유곡리, 두락리에 가야고총을 만든 운봉가야의 정치집단으로 보고 있다. 운봉고원의 분구묘와 고총들은 약 180여기에 달하는데, 이 고총의 주인공들이 제철을 생산하여 섬진강을 통해서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운봉고원의 니켈철은 품질이 우수하여 교역망의 허브를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마한의 분구묘 축조집단이 가야의 제철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운봉고원의 아영면 일대에 고총세력이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 고총세력을 기문국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영면 일대 고총에서 월산리 고분의 중국계 청자인 계수호, 철제초두, 금제귀걸이, 기꽃이, 철제 갑옷과 투구 등이 출토하였고, 유곡리, 두락리 고분에서는 수대경과 금동신발이 출토되었다. 수대경과 계수호는 아영면 가야고총세력들이 백제 왕실의 하사품이 아니라 중국 남제와 해상교역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역의 교통로는 섬진강 혹은 동진강 하구 가야포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교역의 주체를 기문국으로

보고 있다. 기문국은 6세기 초에 백제에 복속된다. 운봉고원의 가야고총에서 백제의 굴식 돌방무덤이 발견되어 기문국이 백제에 복속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처럼 기문국은 운봉고원에서 5세기에서 6세기중엽까지 가야소국으로 존재했다.

5. 전라북도는 철기문화 기반의 마한·가야·백제 중심권

준왕은 익산 금마에 당도하여 마한의 한왕 지위에 오른다. 준왕이 남래하기 이전에 초기철기시대에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는 한의 소국들이 태동하고 있었다. 준왕은 익산 지역 한의 소국을 토대로 마한을 일으켰다. 초기철기시대 청동기의 쇠퇴, 고인돌의 소멸, 철기문화의 등장과 철 생산의 급증, 장인 집단의 출현, 농경문화의 발전, 패총의 증가와 대형화, 토기제작 기술의 발달 등으로 목관묘, 목곽묘, 독무덤이 더욱 대형화되었고, 지역성이 강한 널무덤과 주구토광묘, 분구묘, 구덩식 돌덧널무덤이 새롭게 출현하였다. 전라북도 산간 내륙에 위치하는 마한 소국보다 금강, 만경강, 동진강의 새만금권에서 해안평야 지대에 세력을 구축하였던 마한소국들이 더욱 강성하였다.

마한의 대표적인 무덤이 분구묘이다. 분구묘는 흙을 쌓아 분구를 만든 뒤에 봉분을 파내어 널무덤과 독무덤으로 매장주체부를 조성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분구묘들은 군산, 김제, 부안 일대에 집중 분포하는데, 군산지역 18개소에서 30여 분구묘가 학계에 보고되었다. 군산, 옥구, 부안 일대에 분포하는 패총에서 마한계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다량 출토됨으로써, 전라북도 해안평야지대에서 신석기시대부터 마한시대까지 계기적으로 토착세력들이 성장하였음을 알렸다. 새만금권의 200여개 곳의 패총은 신석기시대에 성장하였던 해양 평야지대의 토착세력이 마한·백제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방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전라북도 해안 평야지대의 토착세력은 신석기시대부터 자리 잡고 성장하였다. 해안평야지대는 내륙 하천과 해안도서가 겹치는 해륙지대라 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해륙지대는 익산, 군산, 옥구, 부안, 김제, 정읍, 고창 등지에 하천과 해안도서가 만나는 해안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해안평야지대의 갯벌지대에서 신석기시대부터 패총문화를 태동시켰고, 그 패총문화기반 위에 초기철기시대 세형동검문화가 꽃피었고, 고인돌과 세형동검문화가 퇴조하면서 철기문화와 분구묘 기반위에서 마한문화가 꽃을 피웠다. 전라북도 초기철기시대의

동력은 전횡과 준왕이 대륙에서 우수한 철기문화를 동반하여 전라북도 만경강 유역권으로 들어왔기에 강력한 마한사회를 굳건하게 건설할 수 있었다.

만경강권의 강력한 마한사회는 만경강 지류인 고산천과 소양천이 합쳐지는 구룡부 정상부에 밀집 분포하는 35기의 분구묘가 말해준다. 이 유적군을 완주 상운리 유적이라고 말한다. 완주 상운리 유적에서는 토기류와 철기유물이 출토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철기유물이다. 철기유물은 단야구류를 중심으로 하는 농공구류, 마구류, 무구류 등인데, 단야구는 망치, 집게, 줄, 천착, 쇠기, 모루, 톱 등인데, 이 단야구들은 철정(鐵錠)을 가공해서 철기를 제작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들이다. 상운리 인근의 봉동읍 수계리 신포, 장포유적에서도 철기류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두 유적에서 발굴된 환두대도는 철기로 제작한 무기들인데, 강력한 정치집단이 만경강 중상류 유역에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상운리 유적과 수계리 신포, 장포 유적의 정치집단은 최고의 제철기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만경강을 통해서 문물교류와 교역을 주도하였던 집단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상운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구슬(玉)이 말해주고 있다. 유리구슬은 수정, 마노, 호박 등 보석류이며, 색깔도 녹색, 적색, 주황색 등 다양한 유리구슬이 상운리 유적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리구슬은 군산 산월리 굴식 돌방무덤에서 253점이 출토되었다. 군산 산월리 유적과 완주 상운리 유적의 유리구슬은 만경강 내륙수로를 통해서 정치집단 간에 문물 교류와 교역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유리구슬은 백제의 성장과 남진과정에서 새만금권 만경강 일대 정치집단들이 백제의 중앙집단과 정치적인 외교관계를 통해서 복속되어가는 문화적 산물로 볼 수도 있지만, 해상교통을 통해서 외국에서 구입한 보석류일 수도 있다.

6. 5~6세기 철기문화가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복을 꽃피웠다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분구묘 조영자들은 평야지대에서 마한을 번창시켰고, 백제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체였다. 군산 산월리 유적에서는 마한에서 백제까지 600여점이 유물이 출토되었고, 고창 봉덕리에서는 금동신발 외에 중국제 청자, 일본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전북 평야지대 마한-백제세력은 단순히 평야지대에 수리시설 황등제, 벽골제, 놀제를 축조하고 벼농사를 짓는 농경세력이 아닌, 동진강, 만경강 유역의 수로교통과 해상교통을 연결시켜 선진문물을 받

아들이고 해상교역을 선도하였던 집단이다. 익산 옹포 입점리 고분군의 금동제 관모와 금동신발,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은 한반도 서남해의 해상교통망을 통해서 국제교역을 선도하였던 집단임을 말해준다. 완주 상운리의 분구묘에서 출토된 곡옥, 유리구슬과 군산 산월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구슬, 입점리 1호분에서 출토된 금제 귀걸이, 금동제 장신구류, 유리구슬 등은 새만금권 만경강 유역의 토착세력이 백제의 중앙세력과 교류, 교역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통해서 외국과 문물교류 및 교역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6세기 초 익산 입점리 1호분에서 중국제 청자 사이호가 출토되었고,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에서도 중국제 청자편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은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에 걸친 제사유물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출토유물 가운데 중국계 자기편과 왜계 석제모조품이 출토됨으로서, 죽막동은 5~6세기경 새만금권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정치집단들이 중국 남조와 왜와 문물교류 및 해상교역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해상항로는 연안항로와 사단항로가 발달하였다. 연안항로는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는 바닷길을 말하고, 사단항로는 죽막동에서 중국 항주만으로 가로질러 건너가는 바닷길을 말한다. 이미 5~6세기경 전라북도 마한-백제세력들은 죽막동을 통해서 중국 남조와 왜 사이에 왕래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금동신발이 발굴되었던 고창 봉덕리 분구묘에서 중국제 청자와 일본계 토기가 출토되며 당시 전북지역의 마한-백제세력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 국제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동진강 유역의 가야포와 죽막동 출토품 가운데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등의 가야계 토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죽막동의 가야계 토기는 남해안 가야세력들이 연안항로를 이용하여 죽막동까지 진출하여 마한-백제와 교류하였음을 입증해준다. 왜도 남해안, 서해안의 연안항로를 이용하여 죽막동까지 들어온 것이다. 죽막동 제사유적은 국제적으로 중국 남조, 왜, 국내적으로 백제계, 가야계 유물이 출토됨으로서, 이곳이 5~6세기경 환황해권에서 해상교통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곽장근 교수는 기원전 3세기경 초기철기시대에 전라북도에 들어온 선진 철기문화를 토대로 철의 왕국이 꽃피었음을 알렸다.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 전복』이라는 책에는 5~6세기경 전라북도 철기문화를 압축하여 기술해 놓고 있다.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인 장수 장계 분지와 운봉고원에는 마한 분구묘 문화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가야문화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5세기 전후에서 6세기 중엽까지 반과국은 금강 상류에, 기문국은 섬진강 상류에 가야고총

세력이 태동 성장하였다고 밝혔다. 이 가야고총세력은 전적으로 제철산지에서 철기문화를 발달시킨 제철전문 정치집단이었다.

곽장근 교수는 장수가야를 반파국, 운봉가야를 기문국으로 비정하는데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파국을 비정하는데 봉화로를 근거로 제시하고, 『일본서기』의 기문과 6세기초 운봉 두락리·유곡리 가야고분을 연계시켜 기문국을 비정하고 있다. 운봉고원의 가야고총에서 출토된 유물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는 소설이 아니라 과학이다. 문화는 발굴 유적과 출토유물을 분석하여 논리적, 과학적으로 해석한다. 유적과 출토유물을 과학적이고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역사고고학자의 몫이다. 발굴에 참여하지도 않은 고고학자도 아닌 시민운동가들이 역사해석에 끼어들 틈새는 없다.

이처럼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까지 전북 동부 산간지대에서 가야문화가 꽃피었고, 전북 서부 해안 평야지대에서는 마한-백제문화가 찬란하게 꽃피고 있었다. 이러한 고대국가 태동의 문화적 기반 위에 후백제가 건국되었다. 후백제는 장수가야의 문화적 기반위에 국가적 역량과 위상을 강화시켰으며, 서부 해안평야지대의 마한 백제문화의 기반위에 중국 항주만에 위치하는 오월국과 대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후백제는 통일신라시대 혼란기를 겪으면서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한 중세국가다. 후백제는 가야백제의 문화 기반과 마한-백제의 문화적 기반이 없었다면 전주에 도읍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후백제는 가야백제의 국가적 역량과 마한-백제의 국가적 역량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계승 발전시켰다. 후백제를 바라보면 장수가야, 운봉가야가 보이고, 마한-백제문화가 보인다. 후백제 건국은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가야와 백제를 문화적 동력으로 삼국통합을 성취하려고 했다.

곽장근 교수의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 전북』을 읽고나면, 삼한시대 이전부터 전라북도에서 해안·해양활동이 다양하게 전개하였으며, 전라북도의 동부 산간 가야세력과 서부 해안평야지대의 마한세력들은 바닷길을 따라 바다로 나아가 교역을 주도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마한-백제시대 중국 남조 및 왜와 해상교역을 선도하면서 개방적, 국제적인 다양성 문화를 받아들이고 전파해 주었다. 철기문화를 배경으로 5~6세기경부터 고려말경까지 일관하여 중국의 정통 선진문화를 수용해온 곳이 전라북도였음을 알 수 있다. 곽장근 교수는 이러한 전라북도의 해륙교섭사(海陸交涉史)를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 전북』이라는 책에 모두 담아냈다. 정말로 수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인문고고학자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